

# 축사

황 철곤  
마산시 시장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과 곱게 물든 단풍이 한폭의 그림을 연출하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 국화향기가 그윽한 마산에서 '제7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이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및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은 2003년 제1회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이해를 높이는 국제적인 행사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사회복지전문성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21 세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주제로 한·일 양국의 저명인사분들을 초빙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하게 되어 복지마산 건설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10%나 되는 우리시는 2008년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U-health 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재가방문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거주·체육·교양·요양·의료 등 노인이 한 곳에서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원스톱 노인종합실버타운 건립을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한·일 양국간의 사회복지정보 교환시스템을 체계화 시키며, 국가간 우호증진과 함께 민간교류와 협력에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여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祝辞

黄 喆坤  
馬山市 市長



澄み切った青い空ときれいに染まった紅葉が一つの絵画を演出する美しい秋を迎え、ほのかな菊の香りが漂う馬山で「第7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が盛大に開催されること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同時に、今回の行事のために多くの苦勞を惜しまず尽力してこられ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および財団法人ユニバーサル財団、韓国社会福祉士協会を含めた関係者のみなさんに、深い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2003年の第1回シンポジウム開催を始めに、日韓両国の社会福祉発展のために相互協力、相互理解を高める国際的な行事であり、両国の国際協力と社会福祉増進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21世紀の課題である高齢化社会をテーマに日韓両国の著名な方々をお招きし、高齢化社会に対処する社会福祉士の役割を模索することと聞いております。ここでの議論が「福祉・馬山市」の建設に向けた格好の跳躍台になることを期待します。

高齢者人口の割合が10%にもなる馬山市は、2008年に老人総合社会福祉館を設立して運営しており、一人暮らし高齢者のためのU-health事業、高齢者のための就労支援事業、在宅訪問事業などを推進すると同時に、居住・体育・教養・療養・医療などのサービスを1ヶ所で、すべての福祉施設を利用できる、道内最大規模の「ワン・ストップ高齢者総合シルバータウン」を2013年の完工を目指して推進してい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が、日韓両国間の社会福祉情報交換システムを体系化させ、両国間の友好増進とともに、民間交流と協力にとって、堅固な踏み石になることを期待しながら参加された皆様のご健康とご多幸をお祈りし、ごあいさつに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